|  |  |  |
| --- | --- | --- |
| **자료배포** | 2016.03.15 | |
| **보도요청** | 배포 이후 | |
| **문의** | 한승우 팀장 T: 02 410 9056 / M: 010 4272 1879  최우진 과장 T: 02 410 0416 / M: 010 2365 0005  장은령 대리 T: 02 410 0411 / M: 010 7372 2451 | Email:  pa@hanmi.co.kr |

**한미약품, 비뇨기 분야 신제품 최신지견 나눈다**

**전립선비대증 1차약제 한미탐스0.4mg 임상3상 결과 등 발표**

**오늘(15일)부터 두달간 대구·광주·서울·부산 등 전국도시 순회**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 www.hanmi.co.kr)이 최근 출시한 비뇨기 신제품들의 최신지견을 나누는 전국 심포지엄을 릴레이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립선비대증 1차 치료제 ‘한미탐스캡슐0.4mg(탐스로신 0.4mg)’의 임상3상 결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 심포지엄은 오늘(15일)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17일)과 서울(22일), 인천(24일), 광주(24일) 등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탐스로신0.4mg 3상 임상결과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 ▲한미약품이 현재 개발 중인 비뇨기 분야 복합신약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한미탐스0.4mg 임상3상 결과는 심포지엄의 메인 주제로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미탐스0.4mg은 아시아 최초로 임상 3상을 통해 인정받은 전립선비대증 1차 치료제로, 탐스로신0.4mg은 전세계 67개국에서 처방되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0.4mg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 없었다.

한미약품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받은 만45세 이상 남성 대상으로 탐스로신0.4mg을 투여한 임상3상을 통해, 탐스로신0.2mg 대비 IPSS(국제 전립선증상 점수)가 약 71% 더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또, 탐스로신0.2mg 대비 하부요로증상(배뇨 관련 이상증상)이 빠르게 개선됐으며, 안전성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구구(타다라필)’, ‘팔팔(실데나필)’, '두테드(두타스테리드)', '실도신(실로도신)', ‘한미탐스캡슐0.2mg’, ‘한미탐스오디정0.2mg’ 등 다양한 비뇨기질환 치료제도 소개될 언급될 예정이다.

한미약품 마케팅 박명희 상무는 “탐스로신0.4mg은 전세계 67개국에서 처방되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의 대표 약제”라며 “이번 전국 심포지엄을 통해 효과적인 전립선비대증환자 치료를 위한 한미탐스0.4mg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열린 대한전립선학회에서도 한미탐스0.4mg 성분인 탐스로신0.4mg의 임상3상 결과가 발표돼 주목받았다. 또,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AOFS(아시아오세아니아성학회) 학술대회에서도 탐스로신0.4mg 3상 임상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끝>**